

‘실증도시 광주’ 스타트업 최신 첨단기술 ‘한눈에’

지역 최대 광주창업페스티벌 개막
오늘까지 DJ센터서...140여개 부스
“AI 기술·제품 체험” 방문객 이어져
컨퍼런스·포럼·IR·네트워킹도 열려

지역 최대 규모의 ‘2024 광주창업페스티벌(Gwangju Startup Festival, GJSF 2024)’이 2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막을 올렸다.

광주창업페스티벌은 지역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생태계와 교류하며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기업·기관·투자자·예비 창업자 등 다양한 참가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한다.

‘실증도시 광주’를 주제로 한 창업페스티벌은 이날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열리며, 240개 스타트업과 270개 투자사, 국내외 대·중견기업 16개사가 참여해 △개막식 △전시 및 체험 △컨퍼런스·포럼 △투자유치 IR △밋업·네트워킹 △부대행사 등 총 6개 분야의 행사를 진행한다.

이날 오전 스타트업 170개사, 대중견기업 16개사, 창업 유관기관 6개사 등이 참

여하는 전시관에는 각 기업의 제품 및 기술을 체험하려는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현재 광주 전역에서 실증하고 있는 제품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실증 빌리지가 눈앞에 펼쳐진다. 이곳에는 영상 기반 분석을 통해 고령층 사용자에게 체력·자세 분석 및 맞춤형 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니어 전용 헬스케어 솔루션’, 실시간 크로마키 합성으로 가상 배경과 현실을 결합해 실감 촬영을 지원하는 ‘무드팔레트 인터랙티브 XR 무인 스튜디오’, 인공지능을 활용해 마음 건강 상태를 진단 및 상담하는 ‘마음 검사·상담 기기’ 등이 마련돼 있었다.

특히 현대인이 흔히 겪는 스트레스, 불안, 우울 등 마음 상태를 진단해 줄 수 있는 ‘인공지능 마음 검사·상담 기기’가 인기를 끌었다. 청소년 대상자를 주력으로 하는 해당 기기는 광주 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광주 YMCA) 1층에 설치돼 있으며, 간단한 설문 및 인공지능과의 대화를 통해 현재 마음 상태를 진단하고 맞춤 솔루션을 제공해 준다.

광주에 지사를 설립할 예정이라는 윤현

지 넥스브이 대표는 “병원이나 상담센터에 방문해 본격적인 상담·치료를 받기 전에는 내 마음 상태를 진단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다. 해당 기기는 시간의 제약 없이 언제든 초기 진단 및 마음 상담 기능을 제공한다”며 “광주 실증 지원을 통해 고립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음 검진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증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실증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의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수요기관과의 매칭도 추진하는 ‘실증 Q&A관’도 준비돼 있다.

스타트업 전시관에서는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 109개사가 참여해 기업을 소개하고 창업 아이템을 홍보하는 등 기술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전자제품 블루투스 신호를 감지해 얻은 이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간별 혼잡도 등 공간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티제이랩도 눈길을 끌었다. 데이터 기술을 통해 혼잡도를 관리해 공공 안전을 도모하고, 모빌리티와의 연계를 통해 시간대별 배차 효율화를 이루며, 상권 분석을 통해 주요 상권의 이동 등을 분석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

김재민 티제이랩 대표는 “사람들이 어디서 많이 머무르고, 어디로 귀가 하는 지 등을 분석해 모빌리티 산업과 연계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장·공연장 등에서의 공공안전 관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G-유니콘육성프로그램 주요 지원프로그램(OI, 글로벌 PoC 등) 및 주요 성과를 홍보하는 ‘G-유니콘 홍보관, G-IN Next Level 프로그램 소개 및 주요 성과를 홍보하는 ‘투자엑셀러레이팅 전시관’, 중견·중소 오픈이노베이션 선정 기업들의 성과 및 사업을 소개하는 ‘중견·중소기업 오픈이노베이션 전시관’ 등 다양한 전시관이 마련돼 방문객의 발길을 붙잡았다.

행사장을 찾은 대학생 윤재영(20)씨는 “현재 학업과 창업 활동을 병행하고 있는데 ‘창업페스티벌’이 열린다는 말을 듣고 식견을 넓히고자 방문했다. 자율주행 1인용 탑승 차량 등 참고할 만한 레퍼런스가 많아 도움이 됐다”며 “자동차 분야를 목표로 내년에 예비 창업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직장인 지모(48)씨는 “각 기업이 AI(인공지능) 기술을 어떤 분야에 어떻게 접목했는지 사례를 참고하는 등 시장 조사를 위해 행사에 참여했다”며 “이미 많은 기업이 크고 작은 부분에서 AI를 도입하는 등 기술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으니, AI 기술의 활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메인무대에서는 ‘지역스타트업의 성장방정식’을 주제로 컨퍼런스도 진행됐다. 컨퍼런스에는 황은아 코스포 사무국장, 이철승 광주테크노파크 기업지원본부장, 장영준 바이오트코리아 대표, 방정일 씨너지 이사 등이 참여해 광주의 장점과 매력, 광주 스타트업의 성장 가능성, 지역 인재 등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철승 본부장은 “새로운 역사는 변방에서 시작된다”는 책의 구절이 있다. 지역 사업과 기업들의 발전 가능성을 의미 있게 새기고 있는 말이다. 여러 창업 기업들이 함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갔으면 한다”며 “그 역사를 만들어 가는 길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 기관이 끊임 없이 노력하겠다. 모든 창업 기업들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나다운기자 dawoon.na@jnilbo.com**

전남관광재단, 태국 마이스 시장 개척 앞장

현지 관계자 초청 MICE 팸투어

전남관광재단은 KTO 광주·전남지사가 협력해 태국 현지 MICE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전남·광주 공동 팸투어를 진행했다.

이번 팸투어는 지난 2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호남권 관광설명회에 이어 진행되는 호남권 관광협의체 사업의 일환으로, 전남·광주의 마이스 관광자원을 해외에 알리고 태국 기업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기획됐다.

최근 마이스 산업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태국 현지 주요 MICE 관련 여행사, 언론사 등이 참가해 목포, 여수, 나주, 무안 등을 방문하고 지역의 대표적인 마이스 시설과 관광지 체험에 나섰다.

여수를 찾은 참가자들은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와 예술의 섬 장도 마이스 시설을 답사하고 여수 대표 음식인 간장계장을 맛보고 갖김치 담기도 체험하며 여수의 맛과 멋을 느꼈다.

광주시, 내년 디자인비엔날레 준비 시동

주제 선정·마스터플랜 수립 본격화

광주시가 내년 9월 개막 예정인 ‘광주 디자인비엔날레’의 본격 준비에 들어갔다.

특히 창설 20주년을 맞아 미래 디자인 트렌드와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 디자인·예술·산업이 융합된 새로운 디자인비엔날레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28일 광주시는 ‘2025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에 최수신 미국 SCAD(Savannah College of Art and Design) 교수를 지난 7일 위촉하고 총감독과 함께 주제 선정, 마스터플랜 수립 등 행사 기획을 본격화한다.

광주시는 국내외 주요 디자인 전문가, 학계, 산업계 관계자와 협력을 확대하는

목포와 나주에서는 목포미식문화거리 리해관1897, 3917마중 등 전남만의 매력과 특별함을 지닌 전남 유니크 메뉴를 방문하고 근대역사관, 목포해상케이블카, 나주배음료 등 다양한 관광 자원 체험에도 나섰다.

특히 무안국제공항에서 방곡 노선의 이용 편의성과 혜택에 대한 설명 청취는 참가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전남관광재단 김영신대표이사는 “이번 팸투어를 통해 전남도 MICE 관광자원을 태국을 포함한 동남아 시장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구매력이 높은 해외 기업 인센티브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한국관광공사와 협력해 전남도 마이스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남관광재단은 올해 총 4회의 해외 현지 마이스 설명회와 팸투어를 개최하는 등 해외 마이스 시장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오지현 기자



동구, 따뜻한 겨울나기 용품 전달

광주 임택 동구청장과 동구자원봉사센터 회원, 지역 사회복지관 직원 등이 28일 동구 푸른마을공동체센터에서 김장김치와 난방용품 등 관내 어려운 이웃에 전달될 겨울나기 용품 전달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 동구 제공

전남도, ‘사랑애 서포터즈’ 혜택 대폭 늘린다

통합플랫폼 구축 윈스톱서비스 제공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 가입자가 53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할인가맹점 수도한 500개소를 돌파하는 등 서포터즈 혜택도 대폭 확대됐다.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는 농특산물 판매 촉진과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2022년 9월부터 운영됐으며, 현재 할인가맹점은 505개소다.

서포터즈 가입자에게는 전남지역 관광지, 숙박, 음식점, 전통시장 등 500개 이

상의 가맹점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남사랑도민증’이 발급된다.

지난 9월 전남도는 상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숙박업협회 등 7개 협회와 할인가맹점 확대 업무협약을 해 500개소가 입약정을, 11월에는 대한산악연맹, 수영연맹 등 스포츠·레저 관련 6개 단체와 협력해 서포터즈 가입 5만 명 약정을 하는 등 서포터즈 모집과 혜택 확대에 박차를 가했다.

2025년에는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서포터즈 가입, 할인가맹점 정보 제공, 도내 축제·행사, 도정

소식 등 다양한 서비스를 윈스톱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 할인가맹점은 목포 59개소, 완도 55개소, 여수 51개소 등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해 있다. 업종별로는 음식점 223개소, 카페 67개소, 숙박 59개소, 체험·관람 52개소, 전통시장 15개소 등으로 전남의 필수 여행지와 대표 음식점을 포함하고 있다.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 가입 및 할인가맹점 정보는 공식 누리집(<https://namdo2.jeonna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지현기자**

광주도시철도 농성역 ‘시민 소통공간’ 리모델링

광주도시철도 농성역이 지역 사회 협력을 통해 공연무대를 포함한 시민 소통공간으로 변신한다.

28일 광주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와 광주시, 광주신세계가 노후화된 농성역을 현대적인 콘텐츠가 담긴 시민 휴식 겸 소

통공간으로 새 단장한다.

광주신세계는 전체적인 대합실 공간 구성과 디자인을 담당해 백화점 분위기의 고급스럽고 깔끔한 모습으로 리모델링한다.

공연무대에는 대형 LED 모니터를 설

치해 이용객들이 문화, 정보 콘텐츠 등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 카페와 비슷한 시민 쉼터도 조성한다.

광주시는 주요 콘텐츠 관리를 맡아 시민에게 유용한 각종 복지 정책, 생활 정보, 지역 이슈 등을 제공한다. 리모델링 공사는 12월 시작할 예정이다.

최권범 기자